

-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개발을 위한 -
2013 장성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기 간 : 2013. 3. 5. ~ 3. 12.(8일)
- 연 수 국 : 영국, 스위스, 프랑스
- 연수목적 : 시설방문 및 관광인프라 등 선진지 견학
- 연수인원 : 8명(의원 6, 수행공무원 2)



목 차

제 I 장 연 수 개 요

- 1. 연 수 목 적 2
- 2. 연 수 방 법 2
- 3. 연 수 자 명 단 3
- 4. 연 수 일 정 4

제 II 장 연 수 내 용

- 1. 영 국 6
- 2. 스 위 스 15
- 3. 프 랑 스 22

제 III 장 주요시설 방문지

- 1.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청 및 시의회 33
- 2. 스위스 사회복지시설 36
- 3. 스위스 축산농가 39
- 4. 프랑스 라데팡스 40
- 5. 프랑스 하수구 박물관 44

제 IV 장 연 수 후 기

- 1. 미래의 장성을 현재의 유럽에서 찾다(김○○ 의장) ... 50
- 2. 유럽을 통해 바라본 관광장성의 미래(차○○ 부의장) 54
- 3. 유럽에서 꾸린 장성의 가방(조○○ 의원) 58
- 4. 유럽 연수를 마치면서(김○○ 의원) 63
- 5. 지방자치 21년, 국외연수를 다녀와서(김○○ 의원) ... 68
- 6. 문화와 친절을 배운 유럽 연수(이○○ 의원) 73
- 7. 유럽이 선진사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행정6급 문○○) ... 76
- 8. 유럽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현재와 미래(기능7급 황○○) ... 79

제 I 장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의회 운영제도, 산업시설 방문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군정 및 지역발전 도모

2. 연수방법

가. 연수개요

- 기 간 : 2013. 3. 5.~3. 12.(8일)
- 연 수 국 : 3개국(영국, 스위스, 프랑스)
- 연수분야 : 의회 운영제도 벤치마킹 및 선진시설 견학 등
- 인 원 : 8명(의원 6, 수행공무원 2)

나. 주요내용

-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방문 : 의회 민주주의 시작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를 방문, 의회운영제도 등 설명청취 및 의견교환
 - 스위스 복지시설 견학 : 스위스 인터라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령인구의 흡수 및 복지시설 운영 방법 청취
 - 스위스 축산농가 방문
 - 파리 하수구 박물관 방문 : 280년 역사를 지닌 파리지 하수관리소에서 친환경 수질관리와 관련 설명 및 의견교환
 - 파리 라데팡스 : 파리 근교 신도시로서 파리의 금융, 쇼핑의 신도시로 모범적으로 이전하여 성공한 신도시 견학
 - 유럽 전통문화, 관광지·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 운영실태 등 체험
- 다. 기대효과 : 유럽의 의회 운영현황과 산업시설(환경, 복지, 도시개발) 및 관광인프라 등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

3. 연수자 명단

연번	연 수 자		성별	비 고
	직급(직책)	성 명		
계		8명		
1	의 장	김 ○ ○	남	
2	부의장	차 ○ ○	남	
3	의 원	조 ○ ○	여	
4	의 원	김 ○ ○	남	
5	의 원	이 ○ ○	남	
6	의 원	김 ○ ○	남	
7	행정 6급	문 ○ ○	남	
8	기능 7급	황 ○ ○	여	

4.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제01일 3/05 화	광 주 인 천 런 던	전용차량 KE 907 전용차량	06:00	장성 출발 / 인천공항	중:한 식 석:현지식
			13:10	인천국제공항 출발 / 런던 향발	
			16:20	런던 도착하여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CROWN PLAZA HOTEL	
제02일 3/06 수	런 던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문화 탐방 - 국립 대영 박물관, 시계탑인 빅벤과 국회의사당, 명물 타워브릿지, 넬슨제독의 기념탑이 있는 트라팔가 광장 등 	
			18:00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CROWN PLAZA HOTEL	
제03일 3/07 목	런 던 취 리 히	전용차량 항공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도시락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일정 - WESTMINSTER CITY 시의회 방문 ■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 문화 탐방 - 영국 왕실의 산실인 버킹검 궁전, 왕족들의 사냥터였던 하이드 파크,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18:15	런던 출발 / 취리히 향발	
			20:55	취리히 도착하여 인터라켄 이동 호텔 투숙	
				HOTEL : CITY OBERLAND HOTEL	
제04일 3/08 금	인터라켄 베 른	전용차량	06:00	호텔 조식 및 OST역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0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프스 영봉 중 하나인 쉴트호른 - 케이블카 탑승 - 영화 007 여황폐하 대작전의 무대로 유명한 알프스의 대표 산 하산하여 중식 후 베른으로 이동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일정 - WENDELSEE(노인복지시설) ■ 중식 후 베른 시내 문화 탐방 - 스위스의 숨겨진 보석같은 예술과 건축의 도시 베른탐방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일정 - 축산농가 호텔 투숙	
				HOTEL : CITY OBERLAND HOTEL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제05일 3/09 토	루 짜 른 벨 포 트 파 리	전용차량 기차	07:00 09:00 12:00 18:07 22:16	호텔 조식 ■ 루쟁큰 시내 문화 탐방 - 카펠교, 빈사의 사자상 등 ■ 중식 후 벨포트로 이동 벨포트 출발 / 파리 향발 파리 도착 후 호텔 투숙 HOTEL : HILTON ORLY HOTEL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도시락
제06일 3/10 일	파 리	전용차량	07:00 09:00 18:00	호텔 조식 ■ 신도시 LA DEFENSE 견학 ■ 파리지내 문화 탐방 - 베르사이유 궁전, 개선문 전경, 상제리제 거리, 오벨리스크가 있는 콩코드 광장, 오르세 미술관 만국 박람회 기념때 세워진 에펠탑 전망대 3층, ■ 석식 후 세느강 유람선 탑승 하여 노트르담 조망 등 파리 귀환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HILTON ORLY HOTEL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07일 3/11 월	파 리	전용차량 KE 902	07:00 09:00 12:00 17:00 20:35	호텔 조식 ■ 방문일정 - 파리 하수구 박물관 ■ 중식 후 파리 문화 탐방 -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성심성당 등 석식 및 공항 이동 파리 출발 / 인천 향발 기내 숙박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08일 3/12 화	인 천	전용차량	15:25 16:00 20:3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인천 출발 / 장성 향발 장성도착	조:기내식 중:기내식 석:한 식

제II장 연수내용

1. 영국

① 일반현황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연합국가인 셈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동부의 잉글랜드, 남서부의 웨일스로 되어 있다.

영국의 기원은 5-6C 경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9C경 통일된 왕국을 수립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간의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영국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헌장(마르나카르타)의 제정을 비롯해 시민 혁명, 권리장전 등 세계 민주주의의 발생국인 동시에 제국주의의 아성을 쌓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으로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면모는 많이 사라졌으며,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도 중국에 반환되어 비로소 제국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원수이나, 정치적 실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다.

주요 산업은 금융업, 철강, 관광산업이며, 주요 교역 대상국 유럽 연합과 미국이다.

영국의 날씨는 '하루동안에 4계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이다. 한여름에도 해가 가리거나 비가 내리면 냉기가 들 정도이다.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약 5,700만명의 인구 중 주요 인종은 앵글로 색슨 계이며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은 켈트 계가 중심을 이룬다.

퀸즈 잉글리쉬로 불리는 정통과 영어가 공용어이며, 약간의 웨일즈어와 켈트어가 쓰인다.

영국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차갑고 꼼꼼한 인상을 주지만 대체로 공손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매우 유머스럽다.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문화활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많은 영국인들이 예술 및 언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종교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약 60%를 차지한다.

- ◆ 수 도 : 런던(London, 707만명)
- ◆ 인 구 : 약 5천 880만명
- ◆ 면 적 : 241,752 km² (한반도의 1.1배)
-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 캠브리지(Cambridge)
-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Anglo-Saxons), 켈트(Celts)
- ◆ 주요언어 : 영어
- ◆ 종 교 : 영국 국교(Anglican, 50%), 카톨릭(11%), 개신교(30%), 기타(39%)

2 런던

영국의 수도이며, 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江) 하구에서부터 약 60km 상류에 있다. 영국의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연방의 사실상의 중심도시다. 뉴욕·상하이·도쿄와 더불어 세계 최대 도시의 하나다.

1888년 런던주(州)가 설치되었고, 1899년 시티오브런던을 제외한 지역을 28개의 행정구로 구분하여 런던 주청(州廳)이 통할하였다. 다만 런던 경시청(스코틀랜드 야드)은 주변의 여러 주에 미치는 수도 경찰관구를 관할하였다. 1963년 런던 행정법에 의해서 1965년 런던 주청이 폐쇄되고, 대신 시티오브런던을 포함한 32개의 행정구로 구성된 그레이터런던 주청이 설치되었다.

런던주는 종래의 런던주 외에 미들섹스·하트퍼드셔·에식스·켄트·서리 등 각 주의 일부를 포함한다. 수도경찰관구보다는 좁으나, 런던교(橋)를 중심

으로 반경 약 24km, 구(舊)런던주의 약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한다.

버크셔에서 남동해안을 향하여 뻗어나간 백악층 중앙에 있으나, 표면은 점토와 모래의 혼합토로 덮여 있다. 이것은 브리튼섬이 유럽 대륙과 육지로 이어져 있던 무렵에, 호수로 주입되는 많은 하천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반이 비교적 약하여 근년의 건축기술이 발달하기까지 고층건축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지형은 남북 교외가 약간 높고, 템스강을 사이에 끼고 있는 시가지는 낮으나, 템스강이 자주 하도(河道)를 변경함에 따라 평탄한 시가지에도 기복이 있다. 기온은 한서의 차이가 작아, 연평균기온은 약 10.5℃이다. 북위 51°5'에 위치하나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강설량도 적다.

한편 여름에도 기온이 높지 않으며, 7월 평균기온 17.6℃로 서울보다 7.1℃나 낮다. 강수량도 적어 연간 약 750mm로 서울의 50% 정도지만, 강수일수는 훨씬 많아 1년의 반에 가까운 168일에 이른다. 겨울에는 강수량은 적으나, 대개 날씨가 흐려 어두침침하다. 또 런던의 안개는 유명하며,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걸쳐 자주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

최근 대기정화정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스모그 현상이 해소된 것은, 하천정화정책에 의하여 템스강이 정화되기 시작한 것과 함께 중요한 변화였다. 바람은 편서풍으로 강풍은 거의 불지 않는다.

③ 런던의 주요 유적지

◆ 대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영 박물관은 러셀 광장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찬란한 꽃을 피웠던 전성기 때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1753년 영국정부가 첼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스 슬론경이 소유하고 있

던 화석, 주화, 메달, 사진 등 80,000점이 넘는 컬렉션을 사들였다. 소장품의 규모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박물관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에서 대영 박물관 건립을 결정하였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과 질을 갖춘 골동품과 공예품, 유물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전시품을 위한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1759년 착공에 들어갔고, 1823년부터 50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서 83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짜리 건물로 1층과 2층에서 대영박물관을 대표하는 주요 전시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3대 인기 전시물은 미라(방60호), 엘진 대리석(8호), 5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제타 스톤(25호)이며 꼭 보아야 할 추천 전시물이고, 앗시리아 라마스 상(방 20호), 람세스 2세(25호), 파르테논 신전, 네레이트 제전(7호), 아메노피스 3세(25호), 목각의 관(25호) 등이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으로 꼭 방문할 것을 권한다. 상설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기간이 한정된 특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다.

◆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

트라팔가 광장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 입헌군주 정치의 중심인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은 영국 여왕의 런던 공식 거주지이다.

1702년 버킹검 공장의 런던 사택으로 지어졌고, 1762년 조지 3세가 사들여 왕족들이 거주하는 여러 저택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조지 4세가 존 내쉬(John Nash)를 고용해 구저택 주위로 새로운 건물을 짓도록 명령했고, 내쉬는 대리석 아치 입구가 인상적인 건물을 완성했다.

나중에 이 대리석 아치는 하이드 파크로 옮겨졌다. 이곳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처음으로 왕족의 런던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버킹검 궁전은 1993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램브란트, 루벤스, 카나레토 등의 작품이 포함된 대규모의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픽처 갤러리(Picture Gallery)를 관람할 수 있다. 버킹검 궁전은 왕실 근위병 교대

식으로 유명하다. 격일로 행해지며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되고 약 45분간 진행된다. 장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72cm의 보폭으로 걷는 근위병들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름 휴가기간인 8월초부터 약 2달동안에는 특별히 버킹검 궁전을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수년 전 윈저성의 화재 복구비를 조달하는데 쓰여진다. 연간 5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회와 오찬, 만찬, 리셉션 등에 초대되어 이곳 버킹검 궁전을 방문한다.

◆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

국회의사당은 화이트홀이 끝나는 템즈 강가에 있으며 7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국 의회 정치의 전당이다.

이곳에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들어서 있었지만, 1834년 대화재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기 시작해 1860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다.

대화재 이후 디자인 공모에 참가한 97개의 작품중에서 Charles Barry and Augustus Pugin의 디자인이 당선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뛰어난 예술가들과 합세해 만들어진 고딕 스타일의 의사당 건물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0미터가 넘고, 1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다. 그 유명한 빅벤은 높이 95m로 아직도 손으로 태엽을 감는 전문적인 시간 지기가 있다.

꼭대기 조그만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의회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국회의사당은 폭탄 테러 이후 입장이 어려워졌지만 방청 형식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빅벤이다.

◆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의 서쪽, 파알라멘트 광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딕 건축 사원으로

영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세기에 착공에 들어가 약 250여년에 시간동안 만들어져 16세기(1503년)에 완성된 사원 건물은 건축학적 견지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딕 양식의 중세교회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진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쪽 입구의 모습인데, 실제 이곳을 통해 사원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에 대한 경외심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이다. 일년 내내 예배가 이루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부터 모두 42명의 영국 왕과 여왕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소로 유명하다. 그리고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도 이곳에서 펼쳐진다. 역대 영국의 왕과 여왕, 정치가, 작가, 음악가, 기사, 배우, 왕족 등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무덤으로 처칠의 묘, 엘리자베스 1세의 묘, 헨리 7세의 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묘 등이 가장 유명한 무덤이다.

◆ 트라팔가 광장

런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트라팔가 광장(Trafalga Square)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런던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변에 런던을 대표하는 많은 관광명소가 들어서 있다.

1820년대 트라팔가 광장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존 내쉬였고, 1829년에 만들기 시작해 1841년에 완성되었지만 그는 완성된 광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광장의 북쪽에는 국립미술관이, 동쪽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다.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42년에 세워진 51미터가 넘는 높은 기둥으로 그 꼭대기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 있다. 실물의 3배 크기인 5.6미터의 넬슨 제독 동상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국의 국가 동물인 사자상, 분수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국다

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사자상은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큰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노획한 프랑스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 4면의 철판부조에는 트라팔가 해전 나일강 해전, 덴마크·러시아·스페인 연합함대와의 전투기록이 담겨져 있다.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휴식장소로 사랑받는 장소이다.

◆ 빅 벤

1859년 E.베켓의 설계로 당시 4만 파운드를 들여 주조된 시계이다. 원래 빅벤이라는 명칭은 당시 공사를 담당한 벤저민 홀경(卿)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서, 원래는 종의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시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종의 지름은 약 274cm, 무게는 13.5t이며 시계탑의 전체 높이는 106m, 시침의 길이는 2.7m, 분침은 4.3m이다.

빅벤은 여러 번의 실험 끝에 1869년 현재와 같은 200kg의 당목(撞木)을 설치한 이후 114년 동안 별 고장 없이 정확한 시계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도 버텨낸 빅벤도 1976년과 1997년에 기계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2004년 4월말에는 종에 문제가 생겨 5월 9일 재가동하기 전까지 15분마다 울리던 종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보신각처럼 빅벤은 새해를 알리는 1월 1일에 영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 타워브릿지

영국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즈강 위에 도개교와 현수교를 결합한 구조로 지은 다리다. 런던 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1886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1894년에 완성한 이 다리는 오늘날에는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수력을 이용해 개폐했지만 오늘날에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의 빅 벤과 함께 런던의 상징으로 꼽히는 타워 브리지. 조명을 받을 때면 하얗게 빛나는 야경이 장관이다.

1894년 총 길이 805m로 완성되었는데, 양 옆으로 솟은 고딕 양식의 탑이 무척 인상적이다. 탑과 탑을 잇는 산책길에서 바라보이는 전망은 언제나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가운데가 열리도록 개폐형으로 만들어진 타워 브리지는 다리가 열리는 모습이 장관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 자주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대형 선박이 지나다니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연 6,000회 정도 열렸던 다리가 이제 연 200회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4 방문지 앨범



템즈강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명품 타워브리지를 배경으로



런던시청에 있는 콜롬버스 달걀 앞에서



트라팔가 광장에서 판토마임 배우와 함께



폐허로 방치된 항구를 재개발하여 신도시로 변모



가로등에 설치해 놓은 아름다운 화분



런던박물관에서 파피루스로 된 역사에 대해 설명들으며.



버킹검궁을 배경으로

2. 스위스()

① 일반현황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예 등 스위스는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면적은 약 41,284km²로 대한민국의 반정도이며,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등의 국과와 접해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그 옆으로는 제네바, 루제른, 쥐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 다뉴브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기후는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하다. 여름에는 건조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딜만한 날씨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더워지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는 4개 국어를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 주마다 표준언어가 모두 다르다.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이 유창하다. 각 TV의 채널마다 각 주가 지정한 외국어로 방영되며, 다국적인 환경에 어릴적부터 쉽게 노출이 된다. 1%를 차지하는 토속 로만어는 거의 접할 수 없다. 독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런 지역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는 모두 통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너를 중요시하고 양보하는 습관이 배어있어 이웃끼리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문화가 혼합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이 4개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알프스 지역, 알프스 지류지역, 중부지역 및 Jura산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 수 도 : 베른(Bern)
- ◆ 인 구 : 7,580,000명(2008년 기준)
- ◆ 면 적 : 41,284km²(한반도의 약 1/5)
- ◆ 도 시 : 쥐리히(Zurich), 제네바(Geneve), 로잔(Lausanne), 루체른(Luzern)
- ◆ 민 족 : 독일인(German), 프랑스인(French), 이태리인(Italian)
- ◆ 언 어 : 독일어(German), 불어(French), 이태리어(Italian), 로망슈어(Romansh Language)
- ◆ 종 교 : 카톨릭(48%), 기독교(44%), 기타(8%)

② 방문도시

◆ 베 른

스위스 베른은 구시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스위스 최초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됐다. 취리히, 루체른, 제네바 등 스위스에 명성 높은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는 베른이 유일하다. 베른은 스위스의 '당당한' 수도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 밝힌 등재 사유는 이렇다. '알레 강에 둘러싸인 12세기에 조성된 언덕 위의 도시. 몇 세기에 걸쳐 독특한 컨셉으로 도시가 발달했으며 15세기풍의 아케이드, 16세기풍의 분수들을 담아내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18세기에 재건됐지만 옛 개성은 그대로다. 베른에서는 한나절 정도만 할애해도 도시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 슈피탈 거리, 시계탑, 대성당, 뉘데크 다리까지 이어지는 길목은 걸어서 둘러보기에 충분하다.

베른 구시가의 독특한 개성은 분수대다. 유럽의 거리들과 다른 재미를 안겨주는 것도 마르크트 거리 등 구시가의 중심을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분수 때문이다. 분수는 아름다운 형상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자의 입을 열고 있는 삼손의 분수,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있는 백파이프의 연주자의 분수, 식인 귀신의 분수에서부터 마을 창시자와 최초의 병

원을 세운 여인을 기리는 분수까지 테마가 다양하다. 그 분수대 옆을 아슬 아슬하게 트롤리 버스(무궤도 전차)가 지난다. 빠른 길과 사람이 가깝다. 오래된 건물 사이, 2차선 도로를 트롤리 버스와 트램이 느리게 오간다. 인도와 차도도 별도의 난간 없이 흰 점선이 대신한다. 트롤리 버스들은 세련된 색으로 치장됐지만 구시가지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친근한 거리들 중 명물로 여겨지는 곳이 석조 아케이드다. 유럽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중 하나로 저장고 형태의 반지하 상점이 늘어서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점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 앉아 사람들이 식사를 즐긴다. 시간과 돈을 아끼려는 도시인의 일상이지만 세계유산인 석조 아케이드에 걸터앉아 나누는 그들의 대화에서는 색다른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아케이드를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게 시계탑이다. 베른의 상징이자 가장 멋진 건축물이다. 도시가 생성됐던 12세기 후반에 지어지기 시작해 16세기 중반에 완성됐는데 매시 정각 4분 전부터 곰들과 광대들이 나와 춤을 춘다. 그 시계탑 아래로 또 트롤리 버스들이 오가는데 시계탑은 감옥탑 이전에 베른의 출입구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분수대, 시계탑 등 여기저기서 곰들이 등장하는 게 다소 의아할 것이다. 베른은 곰의 도시다. 도시의 이름에도 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주 깃발도 곰이 주인공이라 도심 여기저기서 곰 깃발이 펄럭거린다. 베른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시를 세운 체링겐 가문이 곰 사냥을 해서 시작됐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뉘데크 다리 건너편에는 곰 공원도 생똥맛게 들어서 있다.

스위스 최대의 고딕양식의 건물인 베른 대성당은 높이가 100m로 베른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인다. 침탑에 오르면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가깝게 다가선다. 아인슈타인이 머물며 상대성 원리를 완성시킨 집도 아인슈타인 박물관으로 남아 있다. 뉘데크 다리는 도시를 감싸고도는 알레 강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베른에서 반생을 보낸 파울 클레의 작품들도 파울 클레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계유산인 베른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 루 제 른

루제른 호의 호숫가에 펼쳐져 있는 루제른은 취리히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로 숲과 호수가 꼭 아름다운 곳이다. 스위스 중앙부의 중심도시이다. 루제른 호는 '4개의 숲속의 호수(Vierwaldstattersee)'라고 불리며, 스위스 건국의 기틀이 된 곳이다. 도시 한가운데를 로이스(Reuss)강이 완만하게 흐르고, 거리는 중세의 체취가 풍겨온다.

윌리엄 텔의 전설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른쪽 기슭의 구시가지에는 바이런, 바그너가 여행하며 사색에 잠기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오래된 건물과 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카펠 다리 등 구시가지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루제른은 특히 인터라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제일 가파른 필라투스 등산 케이블카를 타러가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루제른은 루제른 주의 중심 도시로 스위스의 굴지의 관광도시의 하나이다

◆ 인터라켄

아레 강을 따라 빠른 고지에 있으며 동쪽으로 브리엔츠 호와 서쪽으로 툰 호 사이에 있다. 해발 568m의 평평한 평야에 위치한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 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한 수녀원을 둘러싸고 발달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 관광휴양지이고, 주요대로(大路)인 회에베크에는 호텔들이 줄지어 있다. 남쪽으로 융프라우 봉(4,158m)의 멋진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알프스 유람 여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직물과 시계가 제조된다. 인구 5,176(1990).

③ 주요 유적지

◆ 쉴트호른

실트호른(Schilthorn)은 알프스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표고 2970m의 산정에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

는 <007>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유명한데, 1시간에 360° 회전하므로 주변의 알프스 산맥들을 두루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림 지대와 몽블랑을 잇는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야외 테라스가 있으며,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카펠 교

1333년 로이스강에 놓인 다리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 다리로 길이가 200m에 이른다. 우아한 형태로 루체른의 상징이 되어 있다.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중에는 17세기 하인리히 베그만의 작품도 10여 점 있다.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의 바서투름(물의 탑)은 등대를 겸한 루체른 방위 탑으로, 위급할 때에는 시민에게 경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소 또는 공문서의 보관소 등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있다.

그러나 1993년의 화재로 예전의 카펠 다리는 타버리고 지금의 건물은 1994년 재건된 것으로 밤이 되면 다리 주변에 조명이 들어와 경관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 빈사의 사자상

자연석을 쪼아서 조각한 사자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792년 프랑스 혁명시 킬리리 공원에서 사망한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기념비다.

호프교회 북쪽의 작은 공원 안에 있는 사자상으로,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덴마크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으로 1821년 독일 출신인 카스아호른에 의해 완성되었다.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는 사자가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사자의 발 아래에는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흰 백합의 방패와 스위스를 상징하는 방패가 조각되어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사자기념비를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하였으며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숙연한 분위기가 흐른다.

4 방문지 앨범



알프스 쉴트호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360도 회전하는 쉴트호른 찻집에서



베른의 상징인 시계탑 앞에서



베른 대성당을 방문하여 기도를 올려보며



루짜른 가는 도중 찍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



'빈사의 사자상'에 관하여 설명들으며..



유럽에서 가장 오랜된 나무다리 카펠교에서



프랑스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만난 학생들과 '강남스타일'을 함께 추며..

3. 프랑스()

① 일반현황

북동쪽으로 룩셈부르크·벨기에, 북서쪽으로 영국 해협, 서쪽으로 대서양과 비스케이 만, 남쪽으로 스페인·안도라·지중해, 동쪽으로 이탈리아·스위스·독일과 맞닿아 있고,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이 포함된다.

면적은 543,965km², 인구는 62,596,000명(2009년 추계), 수도는 파리이다. 국민은 주로 프랑스계이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종교는 그리스도교인에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이며 개신교·이슬람교·유대교도 있다. 화폐단위는 유로(€)를 사용한다. 육지의 반 이상이 농업에 적당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한 넓은 삼림지역이 영토의 1/4가량을 덮고 있다. 프랑스는 소규모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된 혼합 경제이다.

국가수반은 대통령이고, 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이고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EU)의 창립 회원국이다.

문화적으로, 프랑스는 중세 초기부터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프랑스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정착생활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준다.

BC 5세기까지 갈리아인이 라인 강 유역에서 지금의 프랑스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 왔다. BC 600년경에는 이오니아계 그리스인이 마르세유에 있는 정착지를 포함하여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BC 50년에 갈리아에 대한 로마의 정복을 완성했다. AD 6세기 동안에 프랑크계 갈리어족이 통치하였다. 8세기에 이르러 권력은 카롤링거 왕조로 넘어갔는데, 이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은 샤를마뉴였다. 100년 전쟁(1337-1453)으로 인해 프랑스는 영국이 지배해왔던 프랑스 영토를 되찾았다.

15세기말 무렵에 이르러 프랑스 영토는 오늘날과 거의 같게 되었다. 16세기는 프로테스탄트(위그노)와 로마 가톨릭교도 사이에 벌어진 종교전쟁

으로 얼룩졌다. 앙리4세는 낭트 칙령(1598)을 공포하여 상당한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다. 그러나 절대 왕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루이 14세가 1685년에 이것을 폐지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발표했으며,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렸다. 나폴레옹(1799~1814/15)의 통치 아래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령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제2공화정(1848~52)이 설립될 때까지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갔다. 제2공화정 이후 1871년에 제3공화정이 설립되기 전까지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지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8)은 프랑스 북부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찌 독일에 의해 점령된 이후로 친독일주의자 비시 정권이 통치하였다. 1944년에 연합국과 자유 프랑스군에 의해 해방을 맞은 프랑스는 제4공화정 하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제4공화국은 1950년대 인도차이나에서의 값비싼 전쟁과 프랑스 식민지들에서 대두된 민족주의 운동을 감당할 수 없었다.

샤를 드골을 대통령으로 1959년 1월에 제5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는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들 대부분을 독립시켰다. 1981년에 프랑스는 사회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86년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프랑스는 여러 차례 각각 다른 정당의 대통령과 총리로 이루어진 '동거정부'(同居政府)라고 알려진 권력이 분리된 정부 형태의 균형을 유지했다.

- ◆ 수 도 : 파리(Paris)
- ◆ 인 구 : 62,448,977명(2009년 기준)
- ◆ 면 적 : 551,695km²(한반도의 약 2.5배)
- ◆ 주요도시 : 리옹(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 ◆ 주요민족 : 골족(Gaul)
- ◆ 주요언어 : 프랑스어(French)
- ◆ 종교 : 카톨릭(83%), 이슬람교(10%), 기독교(2%)

② 파 리

교외를 포함한 '파리 데파르트망(Department)¹⁾'은 면적 2,723km², 인구 약 993만 명(2006)이다. 오랫동안 센 데파르트망의 수도였으나 1964년부터 파리만으로 독립 데파르트망이 되었다.

파리는 프랑스의 정치·경제·교통·학술·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꽃의 도시'라고 불리며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도시'라고 부른다.

세계의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하여 몹시 좁은 편에 속하지만 둘레 36km의 환상도로(옛 성벽 자취)에 둘러싸인 부분이 1860년 이래의 파리 시가지이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의 0.25%에 이르는 면적에 전인구의 약 6분의 1이 집중해 있는 '대파리'는 해마다 10만~1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지출이나 상업거래량도 전국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에의 집중현상'은 프랑스의 특징이며, 파리는 세계 제4위의 인구밀집 지역이다.

센강(江)이 남동쪽에서 시가지로 들어와 생루이섬과 시테섬을 감싸안으면서 북쪽으로 크게 만곡을 이룬 다음 남서쪽을 거쳐 시외로 흘러나간다.

따라서 동쪽으로는 뱅센 숲, 서쪽으로는 블로뉴 삼림공원이 이어진다. 센강의 남쪽을 '좌안(左岸:리브고슈)', 북쪽의 보다 넓은 지역을 '우안(右岸:리브드루아트)'이라고 부르며, 시 주변에는 로마의 '일곱 언덕'을 연상시키는 언덕이 줄지어 솟아 있다. 연평균기온은 10℃, 1월 평균기온 3℃, 7월 평균기온 19℃로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강우일수는 연평균 189일, 강수량은 600mm이다.

③ 주요 유적지

◆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궁전을 미술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1) 데파르트망은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되며, 하급단위로는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캉통, 코뮌(commune) 순으로 나뉘어진다.

원래 루브르궁에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 특히 프랑수아 1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등이 수집해 놓은 방대한 양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후인 1793년 국민의회가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술관으로 정식 발족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미술품 수집이 계속되어 오늘날의 대미술관이 이루어졌다.

개관 이래 프랑스 미술의 중심적 구실을 하면서 전 세계의 미술가나 미술 연구가 및 애호가들이 수없이 찾아들어 파리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어 있다.

특히 젊은 화가나 조각가에게 거장(巨匠)들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또한 루브르미술관의 관장(館長)이 전국의 공·사립 미술관 운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프랑스 미술관 행정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수집된 미술품은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오리엔트 및 유럽 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것만 해도 총 20만 점을 넘는다. 작품은 각 부분마다 연대·지역별로 분류되어 광대한 루브르궁전의 북동(北棟)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물의 각 층에 배치되어 있다. 회화·공예 부문은 2·3층에, 조각 부문은 1·2층에 진열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인상파 이후의 회화 부문 역시 루브르미술관 소관인데 그 작품들은 '인상파미술관'에 전시하다가, 1986년에 완공된 오르세미술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며,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비롯하여 모네·드가·피사로·르누아르·세잔·고흐 등 근대 회화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들의 우수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슈 미술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가량에 이

른다.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루브르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설치돼 있다.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 밉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 당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유리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면 나폴레옹 홀로 이어진다. 안내 센터, 매표소, 서점, 휴대폰 보관소, 뮤지엄 숍 등이 있다. 이곳에서 티켓이나 필요한 가이드북을 구입하고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한다. 전시관은 드농(Denon)관, 리슐리외(Richelieu)관, 쉴리(Sully)관으로 나뉘져 있다.

각각의 전시관은 지하에서 3층까지로 이뤄져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므로 가능한 한 같은 층에서 다른 전시관으로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편이 낫다.

지하층(Entresol)에는 고대 오리엔트·이슬람 미술작품과 이탈리아·스페인·북유럽 조각품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 조각품은 지하에서 1층에 전시돼 있다. 유리로 이뤄진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더욱 입체감 있는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다.

1층(Rez-de-chaussée)에는 고대 이집트·그리스·로마 미술품도 전시돼 있다. <밀로의 비너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1^{er} étage)은 유명한 작품이 많아 항상 붐비는 곳이다. 19세기 프랑스 회화가 전시돼 있는데 앵그르, 다비드, 들라크루아와 같은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도 2층에 전시돼 있다.

3층(2^{ème} étage) 역시 프랑스 회화를 시대별로 전시해놓았다. 2층과 함께 관람객에게 무척 인기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플랑드르·독일의 회화도 전시되어 있다. 렘브란트, 루벤스, 베르메르 등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개 선 문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다. 개선문은 나

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로마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대로 본떠 설계했다.

로마 시대에 개선문 아래로 행진하도록 허락된 자는 영웅뿐이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한 황제와 그 부하들이 개선문 아래로 개선행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런 일이었다.

파리에서도 4년간의 독일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이 이 개선문 아래로 당당히 행진했다. 개선문은 높이 약 50m, 너비 약 45m로, 외부에는 10개의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부조는 나폴레옹 1세의 공적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으로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에펠 탑

1889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박람회를 계획하면서 이에 적합한 기념물의 설계안을 공모했다. 100여 점의 설계안이 제출되었으나, 100주년기념위원회는 유명한 교량기술자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안을 채택했다.

높이 300m의 노출격자형 철구조를 세우려는 에펠의 구상은 경이와 희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미학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를 받았다.

조금이라도 이와 비슷한 구조물은 여태껏 지어진 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 탑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나 기자의 대(大)피라미드보다 2배나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옛날 기념물과는 달리 에펠의 탑은 적은 노동력과 싼 비용으로 몇 달 만에 세워졌다. 풍력(風力) 등의 하중을 받는 금속 아치와 금속 트러스의 성질에 관한 앞선 지식을 활용해 건설된 이 구조물은 토목공학과 건축설계 분야의 일대 혁명을 예고했으며,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미학적 가치를 입증했다.

4개의 반원형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 탑의 기단은 공학적인 배려와 함께 에펠의 예술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엘리

베이터를 설치해야 했다. 미국의 오티스엘리베이터회사에서 설계한 유리 승강기는 이 건축물의 주요특색으로, 에펠 탑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로 부각시켰다.

에펠 탑은 1930년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자리를 지켰다.

◆ 상젤리제 거리

프랑스파리 시의 2km 길이의 길이다. 동쪽의 콩코르드 광장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샤를 드골 광장에투알 개선문까지이다. 피에르 드라노에가 이 거리의 이름을 바탕으로 Aux-Champs-Elysees란 노래를 작곡하였다.

상젤레제란 이름은 엘리시온 들판(Elysian Field)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믿던 곳이었다.

상젤리제 거리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천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리도쇼를 볼 수 있는 리도극장도 이곳에 위치한다.

◆ 세 느 강

총연장 780km에 유역면적은 약 7만 8,700km²에 달한다. 이 하천의 유역은 파리 분지 북반부에 발달했으며, 주요하류는 이 분지의 동남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상파뉴와 파리 지역을 경유하고, 노르망디 지방을 통과하여 대서양에 유입하는 동남-서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수세기 이상 프랑스의 수도였고, 서부 유럽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가 이 하천의 중하류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센 강은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강의 하나로서, 프랑스 내륙 수운의 대부분이 이 강의 하계망에 의존해왔다.

파리는 센 강과 그 지류의 주요합류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 강과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센 강 유역의 중

심지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지방은 프랑스 왕국의 요람이자 역사적으로 국제 확장의 거점 구실을 해왔으며, 지금도 대도시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심지이다.

◆ 노트르담 대성당

중세 고딕 양식의 대성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성당으로 그 규모와 오랜 역사로 유명하며, 고고학과 건축학적 관심의 대상이다. 파리 센 강에 떠 있는 시테 섬에 있다.

파리 주교 모리스 드 쉘리가 이전에 있던 2개의 바실리카식 교회당을 합쳐 하나의 큰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1163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머릿돌을 놓고 1189년 대제단이 봉헌되었다.

서쪽 앞면의 성가대석과 네이브[身廊]는 1240년 완공되었고 그뒤 100여 년에 걸쳐 포치(porch), 예배당, 그 밖의 여러 장식물들을 지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흠집이 생기고 약해졌으며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크게 파손되어, 19세기에 서쪽 정면 '그랜드 갤러리'의 28개 조상과 3개 출입문 측벽에 서 있는 조상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트랜셉트[翼廊]와 네이브 사이에 높이 솟은 첨탑은 19세기에 복원된 것이다.

전체 길이 130m, 폭 48m, 천장 높이 35m, 탑 높이 69m의 대건축물로 탑 위에 뿔족탑을 덧붙이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 그대로이다. 4각형 쌍탑과 쌍탑의 선을 따라 정면을 3부분으로 나눈 버팀벽의 수직선과, '그랜드 갤러리'의 수평선이 '장미창'(薔薇窓)을 중심으로 비할 데 없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면에 3개 입구와 그 입구의 이름과 관련지어 만든 조각, 그 위에 유대 왕과 관련 있는 조각이 들어서 있는 갤러리, 직경 10m에 가까운 장미창, 그 위에 긴 열주(列柱), 좌우의 탑 등 양식은 고딕 건축의 전형으로 성당 건축의 기준이 되었다. 내부는 아일[側廊]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네이브는 거대한 원주가 끝에서 3개의 기둥으로 나뉘면서 천장으로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높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엄한 종교적 공간을 연출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북쪽 정면의 장미창을 제외하고는 후세의 작품이다.

오른쪽 출입구의 〈성모자 聖母子〉(1165~70경), 왼쪽 출입구의 〈성모 대관 聖母戴冠〉(1210~20경), 중앙 출입구의 〈최후의 심판〉(1220~30경), 북쪽의 〈붉은 입구〉, 내진(內陣) 주위를 장식한 진한 색깔의 〈그리스도 전(傳)〉(14세기)이 유명하다.

이 성당은 나폴레옹의 대관식(1804), 파리 해방을 감사하는 국민예배(1944. 8. 26)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의 꼽추〉의 무대이기도 했다.

◆ 몽마르뜨 언덕

프랑스파리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종교적 분위기와 시대에 따른 미술사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주거지역이기도 하면서 역사·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여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꼭 들르는 곳이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로,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 칸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영화 촬영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예술적 모습을 띠는 지역이 밤에는 환락가로 변한다.

◆ 성심성당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프라하의 옛 시가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비노흐라디 지역에 도착한다. 이곳에 있는 성심 성당은 1930년대나 지금이나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요제 플레크닉(1872~1957년)은 자신의 작품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여기서만큼은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의 영향이 눈에 띄게 보인다. 본당 벽의 3분의 2는 어두운 갈색 벽돌로 쌓았고, 클링커(두 번 구운 벽돌)로 강조하였다. 화강암과 인조 석재로 만든 더 밝은 색깔의 정사각형이 벽 곳곳에 박혀 있다. 벽의 맨 위쪽 3분의 1은 하얀 석회로 마감하고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코니스로 장식하였다. 대문은 벽돌로 만든 외관을 강조한다. 네이브 위쪽으로는 잊을 수 없는 시계탑이 보이는데, 역시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는 하얀 페디먼트가 있다.

42미터 높이의 탑에는 두 개의 커다랗고, 또렷하고, 유리를 위에 덮은 시계의 숫자판이 있어 탑의 육중함을 조금 덜어준다. 종탑은 비어 있고, 아트리움 갤러리로 사용하는 지그재그 경사로가 있다. 개방형 네이브인 내부는 석회로 칠한 바둑판 안에 도금한 십자가로 장식한 벽돌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낮의 빛이 윤을 낸 목조 코퍼링 천장 아래 채광창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바닥은 원형 빨강-회색 문양의 돌 모자이크를 깔았다. 프라하 성심 성당은 플레크닉의 교회 건축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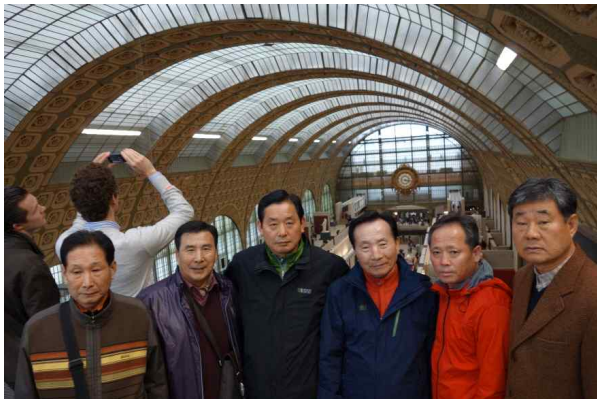
4 방문지 앨범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선문'을 배경으로



폐기차역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오르세' 미술관



'에펠탑'에서 바라본 파리시내



'세느강'에서 바라본 에펠탑 야경



노트르담 성당을 배경으로



봄비가 내리는 '몽마르트 언덕'



'루브르 박물관' 방문 기념 한 컷

제3장 주요 시설 방문지

1.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청 및 시의회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6.(수) 11:00~12:00
- 장 소 :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의원 6,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2, 전문통역 1, 공무원 2)
- 웨스트민스터 관계자 : 2명(사이몬 가츠쇼어 - 시장 비서관,
리차드 크레이시 - 정책보좌관)
- 내 용 : 영국의 지방의회 구성 및 웨스트민스터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 및 대담

2) 설명내용

- 지리적 위치는 템스 강의 북쪽 제방을 끼고 있으며, 런던의 웨스트엔드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쪽으로 척허 자치시인 켄싱턴 첼시와 동쪽으로 런던시에 접해 있음.
- 주요 명소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버킹엄 궁전, 트라팔가 광장, 세인트 존 파크, 영국 총리 거주지인 다우닝가 10번지 등이 있음.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직을 겸직하는 시장은 시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
- 즉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하며,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의회의 예비심사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의 집행도 담당함.
따라서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국장은 각 소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며 책임도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짐.

- 영국 전체적으로 433개의 지방정부에 11,000개의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700억 파운드(약 115조 5천억원) 예산에 2백만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선거로 약21,000명의 의원이 선출됨.
- 런던시에는 32개의 구가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시는 구보다 작은 시이며 60명의 시의원과 10명의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규모는 약 1.8조원 규모이며 48%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25%는 기업에서 나오며, 25%는 주민세, 기타 2%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비, 스포츠시설 운영비, 건물 임대 수수료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음.
- 웨스트민스터 시는 2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매일 1백만이 방문하고 있으며, 13.68km² 면적에 20개 선거구에서 60명의 시의원과 3,000개의 업소가 있음.
- 주로 하는 일은 노인과 어린이를 돌보고, 도로를 깨끗하게 하며, 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임.
- 웨스트민스터 시 집행부 구성은 의장이 10개 분야의 상임국장을 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1년에 1회씩 검증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교체함.
- 웨스트민스터 시의 현재 도전과제는 시의 북부지역의 빈곤문제(직업 부족, 주택·교육 문제에 대한 지원), 예산절감(2천억 원을 4년에 나누어 절감), 노령화 문제(예산을 절감하며 노인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주자 정착문제(1년에 30% 이주), 독립적인 시가 되기 위한 준비 등임.

3) 질의답변

- (차○○ 부의장)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 ⇒ 65세부터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지급하고 있음. 영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 주택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데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적 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 (조○○ 의원) 국민의료보험 제도는 있는가?

⇒ 의료보험 제도는 따로 없으나 사회보장 보험제도가 있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별로 소득액의 8~10%를 내야하고, 고용주는 8~12%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료 정책에 의해 6개월 이상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945년부터 의료비가 무료임.

⇒ 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의 제도에 따른 1차 진료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가능함. 좀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보험을 넣어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김○○ 의원) 장애자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있는가?

⇒ 장애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장애자에게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장애를 입는 순간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 (차○○ 부의장) 침체된 지역 활력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있는가?

⇒ 특별하게 정해진 것보다도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에 지원하고 있음.

예) 항구지역(DUCK LAND)이 낙후되어 방치되어 있을 때 공청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입주회사는 5년간 영업세 무료, 임대료 10% 인하 등을 통해 모건스텐리 등이 입주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 (김○○ 의장) 의원들의 보수는 어떠한가?

⇒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약 1,800만원임.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하고 있으며 영국의 셀러리맨들은 보통 연봉 1억원을 받고 있음.

○ (이○○ 의원) 한국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데 영국 의회의 고유기능은 무엇인가?

⇒ 영국은 의회의원이 집행부 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없으나, 4명의 감사가 독립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쓰여 지는 부분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김○○ 의원) 의원이 되고자 하는 경쟁률은 어떠한가?

⇒ 메리트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음. 선거는 1당이 3명씩 공천하고, 투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선출함.

4) 시사점

- 영국의 자치단체제도는 기관통합형이나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해 왔으며, 그 결과 각 지방정부의 행정수요와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역별로 다름.
-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해외원조, 통화관리 등 국가차원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편익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 경찰 및 소방 등을 제공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주민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육·경찰업무가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기능과 자원 분담이 필요

2. 스위스 사회복지시설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8.(금) 13:00~14:30
- 장 소 : 인터라켄 Wendelsee 양로원
- 참 석 자 : 11명(의원 6, 양로원 원장 등 2, 통역 1, 공무원 2)
- 내 용 : 스위스의 복지시설 및 양로원 운영 현황 및 대담

2) 스위스의 복지제도

스위스 인구는 약 722만 명,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어, 1990년 현재 14.5%, 2020년에는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이 때문에 노인연금 예산도 2020년 이후에는 적자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노인 복지는 주로 주(canton, 칸톤) 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지역과 여성, 남성에 따라 62- 65세 부터 지급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완벽을 향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피텍스 Spitex 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포함해 주, 야간 가정에서의 보살핌과 간호, 가사 도우미, 식사배달, 쇼핑, 운전, 산책에다 이발, 미용까지 도와주는 제도임.

이밖에도 아파트형 양로원, 간병형 요양원 등 갖가지 형태의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00~2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공립 양로원은 전담 전문의, 간호사, 간병인, 심리상담사, 일반 도우미와 직원들 숫자가 거의 거주자 숫자와 맞먹고 있음.

3) 복지시설 개요

- 원 장 : 무슈레젠(여)
- 입 소 자 : 15명
- 근무인원 : 18명(의사 1, 간호사 4, 요양보호사 및 요리사 13)

4) 질의 · 답변

-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 보조는 얼마나 받고 있는가?
⇒ 본 요양원은 사설 시설로 입소자 본인 부담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으나, 개인비용이 부족할 시에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 ⇒ 다만, 입소자들은 연금과 의료보험 조합에서 나오는 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병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호텔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현재 노인 입소자보다 많은 근무자가 상주하며 도와주고 있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있는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 이러한 사설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 스위스 국적으로 8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함.

○ 하루 일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피아노 배우기, 수놓기 등 노인들이 재밌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5) 시사점

○ 스위스는 노인시설에서 간호사 1인당 2~3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간호사는 양로시설당 1인, 요양시설 50인당 1인, 생활지도원은 양로시설 25인당 1인, 요양시설 10인당 1인, 전문요양시설 5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어 보호인원과 간호사와의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음.

○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에서나 국민의 복지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노인복지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스위스는 어느 지역이나 마을단위로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아동 시설이라 해도 작은 방과 놀이터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노인복지시설 역시 지역센터와 양로원이 한 울타리에 있는데,

○ 이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복지수혜자를 자선적 대상자가 아닌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3. 스위스 축산농가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8.(금) 16:30~17:30
- 장 소 : 인터라켄 축산농가
- 참 석 자 : 10명(의원 6, 축산농가 1, 통역 1, 공무원 2)
- 내 용 : 스위스의 축산농장 운영 현황 및 대담

2) 축산농가 개요

- 축산농가명 : 켈러
- 사육두수 : 젖소 37마리
- 두당 우유 생산량 : 7,000 ℓ (1일 생산량 35 ℓ)
- 소 득 액 : 약 1억 3천만 원/년

3) 질의·답변

- 젖소의 단가는 얼마인가?
⇒ 약 2,500~3,500프랑(2,900~4,010만원)에 형성됨.
- 37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것은 혼자서 하고 있는가?
⇒ 아들이 두 명 있는 데 같이 하고 있음.
- 그러면 37마리의 젖소만 키우기에는 축사 규모가 작지 않은가?
⇒ 스위스에서는 초지 면적당 젖소 사육수량이 적용되어 더 늘릴 수가 없음.
- 젖소 37마리 사육으로 약 1억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득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가?
⇒ 축산농가에는 축산업협회에서 1년에 5만 프랑(약 5천 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이 지원비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
-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가축분뇨는 자체 축사에서 퇴비화하여 농장에 살포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농장으로 이동시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말을 피해서 작업하고 있음.

○ 젓소의 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 건초 등을 말린 조사료와 일반사료를 배합하여 먹이고 있음.

4) 시사점

○ 우리나라나 스위스의 농가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경영이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농가에서 농업기계 및 시설비 등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스위스는 농가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모든 농가에게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음.

○ 시설비 등에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 지원방식의 보조금 지원 검토가 필요함.

○ 축산분뇨 처리가 가장 큰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고, 분뇨처리장 운영에도 많은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여건에서 자연순환형 분뇨 처리방법은 적극 검토가 필요함.

4. 프랑스 라데팡스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10.(일) 11:00~12:00

○ 장 소 : 라데팡스

○ 참석자 : 9명(의원 6, 해설자 1, 공무원 2)

○ 내용 : 신도시 라데팡스 설치개요 및 대담

2) 설명내용

○ 도시개요

- 위치 : 프랑스 파리 북서쪽 6Km 지점

- 면적 : 744ha(A지구 : 154ha, B지구 : 590ha)

- 인구 : 11만 5천명

-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8Km 지점 세느강변에 조성된 파리의 부도심이며, 파리의 중심지역에 있는 툴르리공원, 콩코르드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등은 라데팡스 지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도시를 관통하는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프랑스 미테랑 정부와 파리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 위원회가 1959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개발구상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음.
- 라데팡스는 46만평의 땅위에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 등의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고층·고밀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서 있음. 시내 중심에는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임.
- 관광지가 몰려있는 파리 시내를 구시가지라 한다면 이곳을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데, 라데팡스 지구를 조성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도로 등은 지하로 배치해 자동차 소음도 들리지 않고 차가 보이지 않아 도심의 혼잡이 거의 없음.
-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맞이하여 그랑드 아르슈(프랑스어: Grande Arche)라 불리는 라데팡스의 신개선문인 초현대식 건물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음. 그랑드 아르슈는 하이테크 건축기법을 사용,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물임. 앞의 넓은 광장은 파리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서 여름이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림. 신개선문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으로 샹젤리제 거리의 구개선문이 보임.

3) 혁신사례

(1) 탄력적인 건축규제 방안마련

- 1964년에 발표된 당초의 마스터플랜은 동일 현상의 30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인 인공도시로 계획하고,
- 주택은 중층의 8층 건물로서 4각형, 상업용은 저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은 가로 42m, 세로 24m로 통일되어 있었기

- 때문에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경관과 수용에의 부적응이 문제가 되어
- 1970년 마스터플랜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규제에 탄력성 있게 적용됨.

(2) 도로체계

□ 입체교통시스템(인공지반 도입과 다층구조 교통여건)

- 비즈니스 지역(48만평)에 거대한 복층도시구조를 설치하고, 도로·지하철·철도·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 등을 조성함.
- 복층구조를 통해 교통효율의 극대화, 파리의 전통인 역사성과 예술성의 강조, 공간 활용도 제고, 개발비용을 절감
- 지상에서의 도로 확장, 신규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 부담과 공기장기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간 이용도를 극대화함.
-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지상공간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

□ 교통망

- 지하교통망을 통해 하루 15만여 명을 수송하며 외부유입 승객의 80%를 담당하고 있음.
-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고
- 라데팡스는 많은 버스들의 종점으로 버스를 통해 파리시내 주변지역과 연결되고 있음.

(3) 일관된 도시설계 작업

□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

- 지난 40여 년간의 개발기간동안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 연결'이라는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설계구조를 유지함.
-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콩코르드광장-상제리제거리-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 선상에 놓여 있음.

- 라데팡스는 별개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대도시인 파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파리에서 라데팡스를 거쳐 북서쪽 25km에 위치한 세르지퐁트와즈 신도시 전망대까지 축이 연장되게 하였음.

□ 관광 신도시

- 최고의 비즈니스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도시설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트인 공간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함.
- 그랜드아치(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작) 등 대형 건축물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도시라는 평가와 더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음.
- 복층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보행자와 전용으로 합과 동시에 소형 관광버스만은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4) 성공요인

-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과 편리한 인프라구성에 의한 기업의 유치**
1970년대 이후 프랑스 국내외 기업들의 진출이 줄을 이었고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기업이 이곳에 본사나 지사를 설치했으며 프랑스텔레콤 등 프랑스 상위 20개사 중 14개사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엑손, IBM, 모빌 등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함.
- **완벽한 교통망 구축**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도시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초기부터 정부보조 및 건축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

5) 시사점

- 신도시 등 도시발전 계획 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자원으로의 발전 및 도시 효율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 필요.
- 도시내 건물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파리 중심부의 역사적 보전건물과 대비하여 신도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

- 신도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철도, 버스, 주차장 등)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
- 파리주민의 인구분산 효과를 얻기보다는 파리 구도심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지구를 건설함.

5. 프랑스 하수도 박물관

1)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11.(월) 11:00~12:00
- 장 소 : 파리지하 하수 박물관
- 참 석 자 : 10명(의원 6, 하수 박물관 직원 1, 통역 1, 공무원 2)
- 내 용 : 프랑스 하수 박물관 설치개요, 운영방법 설명 및 대담

2) 설명내용

- 파리 지하 하수 박물관은 파리 7구 레지스탕스 광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처리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해 만들었음.
- 박물관은 500m 가량의 지하 터널을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들을 전시하고 파리 하수구의 역사와 구조 하수처리와 안전장치 시설, 하수구 청소법을 알려주고 있음.
- 파리 하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 나폴레옹 3세 때 쎌느지사인 후스만 남작이 계획하고 토목공학자인 위렌 벨 그랑에 의해 하수 차집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설치 완성 됐으며 하수관망은 저지대에서의 펌프장 시설이 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연 유하가 되도록 설치하였음.
- 현재 하수도 총 연장 길이는 2,400km로 파리 시내도로 총연장 길이 1,500km의 두 배에 이르며 모든 도로의 밑에는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하수도관망이 주소가 있으며,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파리 하수도의 기본적인 구성은 1단계 관망과 2단계 관망 그리고 3단계 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관망에는 상수도관(음용수관), 중수도관(사용 가능 하지만 먹지 못함), 전기 배선관 송풍관등이 함께 매설되어 있음.
- 파리 시내에는 각각 약80~120kg인 맨홀이 100m마다 총 2만 6천개가 설치되어 있음.
- 파리 하수도의 특징은 첫째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며, 둘째 하수와 우수가 통합된 하수는 세느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시로부터 17km 떨어진 오수 처리 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됨.
-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이라 불리는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 길거리 청소물로 쓰임.
- 파리 하수도 특징인 이중수포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으면 이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임.

3) 질의 · 답변

- 1850년대에 하수도 망이 완공됐다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도로기반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수도 망을 완벽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 근대식 하수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전염병이 번지자 오물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하수관 설치 아이디어가 나온 것임.
- ⇒ 그 후 cholera가 물이나 음식물에 들어 있는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부터 하수도 시설이 본격화되었음.
- ⇒ 사실 근대식 하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대도시들은 오물 투성이었음.
- ⇒ 당시 프랑스의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아하게 차려 입은 귀부인들이 오물을 버리는 것을 당연시해서 파리 등 도시의 골목

은 오물과 심한 악취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음.

⇒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 길거리는 오물과 함께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으며, 따라서 긴 치마를 입고 다녔던 당시 여성들에게는 외출이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었음.

⇒ 그래서 나온 게 오물이 치마에 닿지 않게끔 굽이 높은 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이힐(high-heeled shoes)이며, 또 이처럼 밖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향수를 개발하기도 했었음.

○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물 때문에 하수도관이 막히지는 않는가?

⇒ 하수도망에 오물이 들어오면 1차 하수도망을 거쳐 2차 하수도망과 3차 하수도망에서 별도 오물수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음.

○ 오물을 수거시스템에서 수거한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수거가 되지 않아 하수도가 막힐 수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하수구 크기별로 축구공 크기에서부터 지름이 1.5M 크기의 나무로 된 공을 하수구에 넣으면 하수구 물을 따라 나무공이 구르면서 청소를 하고, 공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청소원들이 2인 1조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청소를 하고 있음.

○ 하수도에 번호가 다 있어서 하수도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고하면 찾아줄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 사실임. 파리 하수관망의 특징은 도로주소와 하수관망 주소가 일치하여 귀중품을 도로 배수구에 떨어뜨려도 정확한 지점만 기억한다면 80% 이상 찾아서 돌려주고 있음.

4) 시 사 점

○ 파리 하수도망은 설치된 지 160여 년이 되었지만 특별한 보수를 할 필요가 없이 오염물질 제거 등 시설유지 관리만 할 정도로 튼튼하고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음.

- 프랑스 파리는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년 중 관광객이 8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데, 잘 만들어진 오염시설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관광자원의 기능도 할 수 있음을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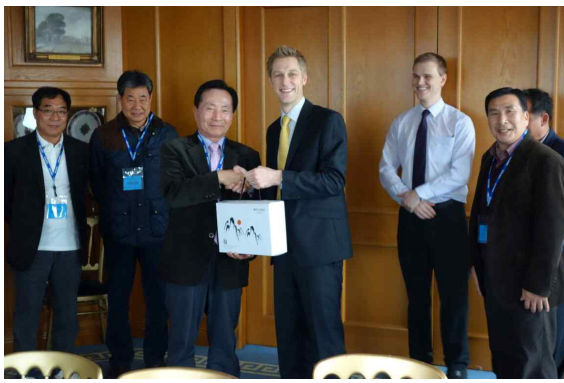
6. 방문지 앨범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및 시청 관련 현황청취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와 토론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관계자에게 감사선물 전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며..



노인복지시설의 1인 숙소를 둘러보며..



노인복지시설 원장에게 감사선물 전달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운영 현황청취



젖소의 꼬리를 매달아놓아 청결도 향상



축산농가(겔로퍼)와 함께



라데팡스의 녹지공간에서 여유를



라데팡스와 직선으로 연결된 개선문



라데팡스의 신개선문 그랑드 아르슈



파리 하수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하수구 박물관을 통과하는 하수구 시설




하수구 박물관 자료 전시관



하수구를 청소하는 큰 공을 배경으로

제Ⅳ장 연수후기

1. 미래의 장성을 현재의 유럽에서 찾다.

 장성군의회의장 김 ○ ○

이른 아침. 서리가 내려앉은 장성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6박8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지인 유럽지역은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역이기에 우리 의회의 미래에 발전과정을 탐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생각되었다. 물론 정량화 될 수는 없으나, 보다 많은 연수 결과물을 안고 돌아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작된 일정이었다. 우리 연수단은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 숙소로 이동하였다. 하루의 일정이 이동으로만 끝난 것은 아쉬웠지만 내일부터의 본격적인 연수를 위해 런던 근교의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영국에서의 아침은 조금 쌀쌀했다. 조금씩 내리는 비와 흐린 하늘은 이곳이 영국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특히,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는 런던의 동쪽, 구릉의 습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더 날씨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았다. 또한 지역의 주택 및 건물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오랜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템즈강변에 위치한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1,050년부터 15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16세기부터 의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834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1840년 20년에 걸친 공사를 통하여 완공된 지금의 국회의사당은 준공당시 영국의 고딕풍의 양식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상원 의원은 약 1,200명이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하원 의원 650이 실질적인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오후의 일정으로 대영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런던시청을 방문하였다. 특히 조형미로 유명한 런던시청 청사는, 조형미만을 중시한 것이 아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로 건축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청사의 이상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후에 방문한 대영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1759년에 개관하였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등의 진귀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한국관을 중심으로 관람하였는데 특히, 파르테논 신전 실물, 아테네의 신전 실물, 제우스 신전 등을 보았을 때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문화재들이 어떻게 그들의 나라에서 해체되어 영국으로 이송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문화적, 과학적 능력과 지식들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화자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다.

연수 3일째 일정으로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시는 우리나라의 구보다는 작고 동보다는 큰 규모의 지방자치 단체이다. 내각의 운영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60여명 시의원 중에서 선출된 의회 의장이 총리의 역할을 겸하고, 시의원 중 10명을 국장 및 임원으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웨스트민스터 시는 총 2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4배 이상인 100만명 정도라고 하니 관광도시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의 정책적인 노력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의 연합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예산 절감을 통한 노령화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동 중 들렀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전통을 보존해온 영국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다. 특히 8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개축하여 18세

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하고 21세기인 지금의 런던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남긴 것은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는 문화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었다.

런던을 떠나 취리히를 거쳐 인터라켓으로 이동하여 투숙하면서 스위스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기상과 함께 느낀 스위스의 쾌청한 날씨와 이른 봄이라지만 들뜬 마음에 남은 잔설, 그리고 만년설이 아름다운 스위스의 경관을 감상하며 우리가 스위스에 와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들이 광광대국 스위스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많이 부러웠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러한 스위스가 관광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노력의 과정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위스의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WENDELSEE라는 노인복지 시설이었는데 스위스는 이러한 형태의 마을단위 규모의 요양소를 시의 지원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는 이색적인 놀이, 피아노, 요리, 노래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보다 관리하고 보조해주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 점, 1인 1실에 각방마다 목욕탕,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한다는 점 등에서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 정책 또한 이러한 스위스의 노인복지 정책을 본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벨포르를 거쳐 파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이고 또 북으로는 북한이 막고 있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는데 유럽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국가간의 이동을 하는데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은 국가간의 물류비용을 절약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되었다. 파리동역에 도착하여 처음 느낀 파리에 대한 첫인상은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지금까지 방문

했던 관광도시들은 매우 깨끗한 이미지였던 것에 비하여 파리는 조금 저분한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정책이라 하니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관광도시의 명성에 맞는 청결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에펠탑의 조명이 드리운 세느강의 야경은 이러한 첫인상은 모두 잊게 만들었고, 과연 파리는 관광의 도시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관심있게 방문한 곳은 파리의 하수박물관이었다. 특히, 근래에 우리장성에서도 하수관 공사가 시작된 지역들이 있어 이곳의 방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파리 하수도박물관에서 보게된 하수도 관리의 역사와 노하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수도와는 많이 달랐다. 특히 1800년경부터 하수도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설치된 시설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신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보다는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유지를 통하여 예산상 많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공사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유지보수비용의 절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유럽의 모습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본받아야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노인 복지를 위한 우리보다 발빠른 노력들, 그리고 오랜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행정적인 노력들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장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번 연수에서 보고 느낀것들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장성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연수소감을 마친다.

2. 유럽을 통해 바라본 관광장성의 미래

장성군의회 부의장 차 ○ ○

1) 연수를 시작하며

우리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발전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으로의 연수.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시간인지라 비교적 조용한 장성을 떠나 인천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많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12시간의 긴 이동 후 다시 버스 이동. 긴 이동 시간은 연수의 시작부터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선진 유럽지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장을 풀었다.

2) 영국에서

오전의 일정은 템즈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과 빅벤 등의 관광 자원들에 대한 탐방으로 시작되었다. 템즈강은 길이 336km인 영국을 대표하는 강으로 잉글랜드의 중남부를 횡단하여 북해로 흘러든다. 템즈강은 런던의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도 수운과 상수도 원 등으로 이용되며, 특히 수운은 런던항에서 다른 공업지대와 연결되어 국내 물자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상류지역은 요트와 보트 놀이 시설이 많으며, 교량은 런던 시내에 걸쳐 있는 런던교, 타워브리지, 워털루교 등이 유명하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원래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16세기부터 의회가 열리는 곳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800년대 화재로 대부분 소실된 후, 복원공사를 거쳐 지금의 의사당의 건설되었다. 현재 상원은 명예직으로 약 1,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원은 선거구에서 선출된 6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후에 방문한 대영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1759년에 개관하여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등의 진귀한 고대 유물이 전시되어있다. 규모 또한 세계 최대여서 하루 만에 전시품을 모

두 보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집트, 그리스 로마, 한국관을 중심으로 관람하였다. 특히, 알렉산더대왕의 동상, 파르테논 신전 실물, 아테네의 신전 실물, 제우스 신전 등을 보았을 때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많은 문화 유산들을 보면서 감동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많은 문화자원을 빼앗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약한 국가의 문화를 빼앗아갔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모습이 이 대영박물관에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날 일정으로 우리는 WESTMINSTER CITY 시의회를 방문했다. 시의회는 영국의 국회와 같은 내각책임제로 운영되었으며, 선거를 통하여 직접 행정에 관여한다고 한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60여명 시의원 중에서 선출된 의회의 의장이 시의원 중 10명을 국장으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예산을 절감하여 그 절감된 예산을 노령화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설명에서는 우리보다 빠른 사회적 고민의 정책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스위스에서

스위스는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수도 베른과 비밀은행, 국제 축구본부가 있으며 수많은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국가이다. 인구는 780만이며 철도가 5,000km, 고속도로 2,500km로 좁은 나라에서 이러한 기간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함을 느꼈다. 또한 이러한 기간 시설들이 국가 내의 모든 관광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관광을 위한 자연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모습에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스위스의 일정 중 한곳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WENDELSEE 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84세 이상 노인 15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시와 협조하여 노인께서 돌아가실때까지 돌보고 있다고 한다. 원장이 직접 설명한 이곳의 요양시설 및 정책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다. 특히 15명의 노인을 위해 의사1명 및 간호사 4명을 포함한 18명이 요양원 종사자로 근무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때,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정책에 같길이 너무나도 멀다라는 현실이 느껴졌다. 앞으로 우리의 노인요양정책의 방향은 유럽의 정책을 많은 부분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4)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의 첫 일정으로 방문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의 보전 모습에 매우 놀라움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외침과 전쟁들에 의해 파괴되어 버려 찾기가 쉽지 않으나, 이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원형에 가깝게 유지 보전되고 있는 모습에 매우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재와 더불어 아름다운 세느강이 야경은 정말 프랑스가 관광의 국가로 불릴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파리의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파리 지하 하수박물관이었다. 이 박물관은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처리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해 만들었다. 박물관은 500m 가량의 지하 터널을 따라 다양하고 시청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파리 하수구의 역사, 구조, 하수처리, 안전장치 시설, 하수구 청소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근대식 하수도의 시작인 파리의 하수도 망이 1850년에 계획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놀라웠다. 현재 하수도 총 연장 길이는 2,400km로 모든 도로의 밑에는 하수도 관망이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파리 시내에는 각각 약80~120kg인 맨홀이 100m마다 총 2만 6천개가 설치되어 있다.

파리 하수도의 특징은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며, 이러한 하수는 세느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오수 처리 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보통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불리는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 길거리 청소물로 쓰인다. 파리 하수도 특징인 이중수포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으면 이

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파리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수관망 청소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수관거가 막혀서 길거리가 침수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우리군도 장성읍 등의 지역에서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수 정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지역들의 특징들을 벤치마킹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설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5) 연수를 마치며

8일간의 연수를 돌아보면 보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특히, 연수 지역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한 세세한 탐방이 부족했던 점들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보완하여 점검하고 싶었다. 또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부대시설들을 점검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관광자원들의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더욱 발전되는 장성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3. 유럽에서 꾸린 장성의 가방

장성군의회의 의원 조 ○ ○

유럽의 지방의회 방문, 양로시설 견학, 하수도 박물관 견학 등의 일정을 가지고 6박 8일의 일정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피곤하고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말로만 듣던 영국, 프랑스, 스위스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의 정책과 문화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였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세심하게 연구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기 시작하면서어느새 비행기는 영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의 비행 끝에 영국 런던공항에 도착하였다. 신사의 도시답게 교통체증과 경적 없이 차량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높은 빌딩은 보이질 않고 5~6층으로 된 연립주택 형식의 주택들도로변에 서 있었다. 가이드의 말로는 런던시내는 10층 이상이 아파트는 없고 6층 이하이고 보통 1~3백년된 건물이라고 하였다. 백년된 주택이 신규아파트에 속하고 2~3백년은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주택이라고 하니건물은 함부로 개조 못하고 일단 시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내부만 한정된 범위안에서 보수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 그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나라면? 아마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일선에 서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전용버스로 방문기관인 영국 스웨덴의회를 방문 하였다. 도착하니 한국 통역관과 그곳 의회의 기획담당, 정책담당 두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의원내각제로 4년마다 지방선거에 의한 선출된 의원중에서 의장이 되고 의장이 시장을 겸하고 국장급 10여명을 임명한다고 하였다.

예산은 중앙 50% 자부담 50%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현안은 분배정책. 노인문제, 복지문제 등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의 보수는 약간의 실비만 지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의원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회의때만 출근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당정치가 발달한 나라로 당의 지침을 따르면서 각자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직업이 '정치인' 이라고 쓰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의원들의 활동이나 의결권, 청원수리 처리권, 행정감사권 활동 등은 비슷하지만 전문직업에서 그들의 전문분야를 살려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방문지는 스위스였다. 추리히 공항에 도착, 숙소에 오니 밤이 늦어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만년설에 뒤덮인 알프스의 설경과 맑은 호수,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젓소들, 그리고 예쁜 꽃들로 장식된 아담한 3층집에서 오라 손짓할 것 같은 기대감에 아침일찍 기상하였다. 예상하였던 대로 아름다운 알프스 산의 만년설을 감상하며 산 중턱까지 이동하였다. 4번의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정상에 올랐다. 가이드 말이 이렇게 좋은 날씨는 1년에 얼마 안된다고 복이 많은 거라 하였다.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감상도 못하고 간사람들도 많다고.....

스위스 알프스 산에는 가문비 나무가 많다고 하였다. 추운곳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고 오래간다고 하였다. 우리 장성의 편백 나무와 모양은 비슷하며, 가문비 나무는 고열로 처리해 여러번 썬서 말리면 시멘트 보다 단단하고 보기도 좋아 스위스의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이 나무로 만든다고 하였다.

친환경 차원에서나 미적인 면에서도 월등이 좋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편백의 효능이 알려져 집안 인테리어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가문비 나무 처리공법, 활용방안 등을 배워가도 좋을 듯 하였다.

다음 방문지는 스위스의 양로원이었다. 50대쯤 되어보이는 여성원장이 인자한 모습으로 맞아주었다. 입소인원이 15명 정도인데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등 16명쯤 된다고 하였다. 입소 어르신 모두 개인방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방안에는 화장실과 목욕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요리, 노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마을마다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점점 농촌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마을마다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차후에는 우리나라 경로당의 기능과 시설을 개선하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

다음날 프랑스 벨보트 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하였다. 기차로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다니..... 실제로 경험해 보니 더욱 짜릿하고 부러웠다.

드디어 예술의 도시 파리에 입성, 파리 하수도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하수도 박물관이라니! 미술관도 아니고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지 하수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스템화 하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현재의 파리 하수도는 1850년에 계획하고 설치되었으며 하수관망은 저지대에서의 펌프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였다. 현재 하수도 총연장 길이는 2,400km로 파리 시내 도로 총연장 길이 1,500km의 두 배에 이르며 모든 도로의 밑에는 하수도 관망이 있다. 또한 도로의 거리 표지판은 지하 하수도관에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와 하수도 관망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수도 지하로 들어가니 상수도는 지하 윗편에 하수도는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으로

나뉘어 모여져 하수종말처리장(오수처리시설)으로 연결 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파리 하수관망은 지상건축물과 같이 번지가 있다고 하였다. 거리주소는 도로 주소와 일치하고 같은 위치 하수관망에도 같은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귀중품을 도로 배수구에 잃어버렸다 하면 중간에 물을 막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찾아준다는데..... 가히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수도사업에 상수도 사업에 날마다 이 구멍 저구멍을 뚫고 있는데 1850년에 계획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다니.... 모든사업에 있어 100년 아니 2~300백년은 멀리 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선진국임을 실감하였다.

우리군도 모든사업에 있어 초기 사업계획 수립하고 설계할 때 꼼꼼하고 중장기 계획등을 검토하여 이중삼중의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았다. 특히 하수관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파리의 하수도처럼 반지는 못 찾더라도 하수관거가 막혀서 길거리가 침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여 육성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관광산업의 개발과 연관되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런던이나 파리의 거리거리에 있는 다양한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를 비치하고 홍보 요원이 상주하는 관광안내소, 관광지 곳곳에서 맛보게 했던 한국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등을 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보존이나 홍보,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유럽연수를 통해 실감 하였다.

이번 유럽 현장체험 연수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생스러웠지만 정말 유익하고 값진 여행이었다” 이다.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과 경외감 새로운 발견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유럽 3개국의 연수 목적으로 방문국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 보고 듣고 한 것이 성과가 아니겠나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가방은 '인생이라는 가방' 인데 그 가방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또 삶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동행한 동료 의원 분들과 나의 룸메이트께 타국에서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4. 유럽 연수를 마치며

장성균의회 의원 김 ○ ○

2013년 3월 5일. 서리가 하얗게 내린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군민회관 앞에서 함평군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지인 유럽의 3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방문은 처음이어서인지 연수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과 근심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오후 1시 30분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여, 11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시각으로 오후 4시경 히드로 공항 도착하여 숙소로 이동하였다. 연수의 하루를 버스와 비행기에서 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런던근교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었다.

6일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 비가 조금 내리는 흐리면서도 추운 날씨였다. 우리가 머물렀던 Crown Plaza hotel은 런던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구릉의 습지대로 외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라고 한다. 이곳에서도 유럽 마을들의 특징인 옛날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와는 다른 발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동 중 가이드로부터 영국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북위 50~60도 사이에 위치하여, 대서양으로부터 멕시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절에 비해 따뜻하게 느껴지며, 벌써 봄의 수선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인구는 500만 명이며, 국민소득은 약4만불, 최저임금은 6.19파운드, 행정구역은 32개의 행정구와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미국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으로 일컬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38%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전력의 공급은 과거 전력생산

의 상당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지하였으나 지금은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의 심각성으로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되었다고 한다.

오전의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템즈강가에 위치한 영국의 국회의사당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템즈강은 런던의 중심을 흐르는 대표적인 강이나 항상 흙탕물 때문에 '죽음의 강'이라 불리고 있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1,050년부터 약 15년 동안 건설된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16세기부터 의회가 열리는 곳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834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된 후 1840년 착공되어 2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금의 의사당의 건설되었다. 현재 상원은 세습의원들과 국가에 봉사거나 인정받아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1,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안을 개정하는 정도의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하원은 선거구에서 선출된 6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당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오후의 일정으로 대영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런던시청을 방문하였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어서 브리핑은 없었으나, '유리달걀'이라 불리는 창의적인 조형미를 갖춘 청사에 대한 느낌은 매우 새로웠다. 특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로써 건물을 남쪽으로 기울려 자연적 그늘을 만들고 단열판을 설치하여 열손실을 줄이는 등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청사의 이상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대영박물관을 견학하면서 2,200년 전의 알렉산더대왕의 동상, 파르테논 신전 2,500년 전 실물, 아테네의 신전 실물, 제우스 신전, 유네스코 1호 보물을 보았을 때 오랜 역사의 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영국의 문화사랑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보며, 이집트 문화 600년, 그리스와 히랍문화, 세계의 고전문화를 보았을 때 대단한 고대문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 3일째 오전의 일정으로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구보다는 크고 동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시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직접 행정에 관여한다고 한다. 4

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60여명 시의원 중 선출된 의장이 시의원 중 10명을 국장 및 임원으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시 안에는 3,000여개의 업소가 있으며, 도시환경과 어린이보호에 쓰이는 예산은 1조 8,000억이 소요된다. 최근 4년동안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지역적으로는 빈곤의 문제, 직업, 주택, 지원문제, 특히 교육 문제가 심각하며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한다. 특이점은 절감된 예산을 통하여 노령화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3개 구가 뭉쳐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장애자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사회보장은 보험이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은 8~10%, 고용주는 8~12%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시청 브리핑 중 민들레차를 대접 받았는데 영국에서 만든 민들레차도 유명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역 특산품에 대한 개발과 노력은 우리도 꼭 본받아야 한다 생각되며, 우리군 북이면 오월리에서 나오는 민들레차도 더 나은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상품화에 진전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동 중 방문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8세기에 지어져 여러 차례에 개축을 거쳐 18세기 지금의 형태로 완공된 영국의 대표적 사원이며, 역대 왕족의 무덤 및 유명인사들의 기념비와 수많은 왕실관련 유물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스위스의 인터라켓으로 이동하여 투숙하였다. 오전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근처의 높은 산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스위스는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수도 베른과 비밀은행, 국제 축구본부가 있으며 수많은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국가이다. 인구는 780만이며 철도가 5,000km, 고속도로 2,500km로 좁은 나라에서 이러한 기간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함을 느꼈다.

일정의 중간에 스위스에서 젓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다. 35두 가량을 키우고 있었는데 주인께서 그날 아침부터 퇴비를 내고 있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과

정에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주어 감사함을 느꼈다. 1년에 1억 2~3천만원 소득이었는데도 정부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부러워해야했었다. 우리나라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인은 뒤로하고 수출위주로 상품만 팔려고 하면서 축산인이나 농촌은 돌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실로 보았을 땐 소, 돼지 농축산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수입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은 해발 3,000m인 쉴트호른 정상을 방문했는데 맑고 구름한 점 없는 하늘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올라가면서 보게 된 스키를 타고 300m 정상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며 역시 세계인의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1시경에 조그마한 마을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여기 양로원은 슈피에츠 마을 단위 양로원이며 물슈레겐이란 여자 분이 원장을 하고 계시고 시와 협조하여 운영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돌본다고 한다.

우리는 하루를 숙박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스위스에서 프랑스 국경을 통과한 후, 기차를 이용하여 4시간가량 이동하였다. 프랑스에는 영국이나 스위스를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파리동역으로 도착하는데 이전 국가들에 비하여 프랑스 시내에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다. 담배꽂초는 시내 곳곳에 널려있으며 쓰레기 또한 곳곳에 널려 있었다. 관광으로 유명한 프랑스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에 조금의 당혹감은 있었으나,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라하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베르사이유 박물관을 견학한 후 에펠탑의 조명이 반짝이는 세느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았을때는 이미 지저분한 첫인상은 사라진채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에 감탄하고 있었다. 책에서 보았던 노트르담 성당의 야경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다.

프랑스의 하수도박물관에서 보게 된 하수도 관리의 역사와 노하우들은 정말 청결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파

리는 1850년경 나폴레옹 3세 때부터 하수도를 정비해 왔고, 현재는 상하수도를 동시에 관리하였다고 한다. 지하에 들어가 보니 상하수의 흐름을 정리하여 실개천, 중개천, 대개천으로 흐르도록 관리 한 것을 보니 과연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수구 안에는 쥐가 400만 마리 가량 산다고 하는데 쥐가 해로운 점도 있지만 음식찌꺼기를 쥐가 먹어치워 하수도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정비 및 지하의 오수처리 방법은 매우 잘 이루어졌다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실행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우리는 지방단체장들께서 자기 임기에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계획을 세워 미래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5. 지방자치 21년.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장성군의회의원 김 ○ ○

1) 연수를 시작하며

농촌의 봄이 꽃망울과 초록의 새순으로 시작하듯이 매일 새롭게 변하는 유럽의 3개국의 선진국을 방문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왜 우리가 영국, 스위스, 프랑스의 3개국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아침 6시에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이동하였다. 장거리 이동인데다, 한국과 9시간의 시차가 있어 피곤에 쌓였지만 해가 지지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영국에 여장을 풀었다.

2) 영국에서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발전을 주도한 나라로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본거지이기도 한 정치, 경제 선진국이다. 보건 의료 체계도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방식이 아니라 국가 조세로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보건 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의료 개념인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있으며 주치의는 환자들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 역량을 키우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환자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널리 퍼진 자원봉사 문화,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와 국민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나라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그들의 의료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WESTMINSTER CITY 시의회를 방문했다. 시의회의 운영형태에서 창조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고 있었다. 의장에 독립적 인사권이 주어지고 4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진다. 의회의 정책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지방자치 운영방식과는 차이점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본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은 공무원 은 공직선거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 스위스에서

스위스는 시계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KOTRA에 따르면 스위스 의료기기 산업은 연 매출액 229억 프랑(2008년 기준)으로 총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의 경관을 잘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발달이 잘 되어 있다. 유럽의 선진 도시의 사회복지 시스템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시대의 노인 복지 정책 수립과 사회복지 시스템 점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접목하기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WENDELSEE 요양원에 방문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요양원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84세 이상 노인이 15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평생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 요양원 종사자는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가사도우미 13명으로 15명 노인을 돌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지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 부양을 국가 사회가 대신하는 '사회적부양'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제도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입소시설을 보자면 유럽은 1인실 1인 어르신을 부양하고 의료인을 스텝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실에 많은 어르신을 모시며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이 많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노인정책은 유럽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의 운영방식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는 예술의 도시이며 에펠탑을 비롯하여 유명한 박물관 등이 있는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잘 구축된 나라이다.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

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누가 뭐래도 환자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생활습관의 변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외 연수 마지막 일정에 가장 인상 깊어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파리 지하 하수박물관이다.

먼저 파리 지하수 박물관에 대하여 소개하면, 파리 지하 하수 박물관은 파리 7구 레지스탕스 광장에 자리 한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처리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해 만들었다

박물관은 500m 가량의 지하 터널을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파리 하수구의 역사와 구조 하수처리와 안전장치 시설, 하수구 청소법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파리 하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 나폴레옹 3세 때 쥘리시사인 후스만 남작이 계획하고 토목공학자인 위렌 벨 그랑에 의해 하수차집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설치 완성 됐으며 하수관망은 저지대에서의 펌프장 시설이 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연 유하가 되도록 설치 하였다 후세에 물려줄 강의 수질을 좋게 만들고,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만든 근대식 하수도의 시작이 바로 파리의 하수도망이다

현재 하수도 총 연장 길이는 2,400km로 파리 시내도로 총연장 길이 1,500km의 두 배에 이르며 모든 도로의 밑에는 하수도 관망이 있다. 또한 도로의 거리 표지판은 지하 하수도관에는 같이 설치 되어 있어 도로와 하수도관망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다.

파리 하수도의 기본적인 구성은 1단계 관망과 2단계 관망 그리고 3단계 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관망에는 상수도관(음용수관), 중수도관(사

용가능 하지만 먹지 못함), 전기 배선관, 송풍관등이 함께 매설되어 있다. 또한 파리 시내에는 각각 약80~120kg인 맨홀이 100m마다 총 2만 6천개가 설치되어 있다.

파리 하수도의 특징은 첫째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며, 둘째 하수와 우수가 통합된 하수는 세느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시로부터 17km 떨어진 오수 처리 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보통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불리는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 길거리 청소물로 쓰인다.

파리 하수도 특징인 이중수포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구 입구에 쓸어 넣으면 이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파리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수관망 청소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수관거가 막혀서 길거리가 침수 되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파리 하수 관망의 특징 중 하나인 거리 주소는 도로 주소와 일치하고 같은 하수관망에도 같은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귀중품을 도로 배수구에 떨어뜨려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일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속에서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이 여자아이 마리우서(Marius)'를 안고 하수도로 도망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군도 장성읍을 비롯하여 황룡면이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수 정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쯤 파리 하수도박물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시설은 자전거도로이다. 지난 우리군은 상무대와 상무아파트 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다. 현재 설비된 자전거도로는 노면 굴곡현상, 농경지 진입로로 경사심각, 교량 밑 등에서 사고위험의 문제가 많다. 그에비해 스위스는 도로 중앙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기존 도로가에 자전거 도로선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도와 구분하여 자전거도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상무대부터 상무아파트까지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유럽형 모델을 응용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반드시 유럽형 모델을 받아들여 시공하기를 기대해본다.

5) 연수를 마치며

이번 6박8일의 연수 과정을 전부 소개하지 못해 무척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얻어진 생생한 현장 체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연수가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드는데 주춧돌이 되길 다 같이 기대해본다.

6. 문화와 친절을 배운 유럽연수

장성군의회의원 이 ○ ○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유럽 3개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를 공무연수계획의 일환으로 둘러보았다.

이들 3개국을 둘러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문화의 선진화가 아닐까 한다.

문화의 선진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도시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환경적인 기반을 설치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로써 먼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 불편할 지라도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폭이 좁고, 차들이 교행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지만,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걸 보기 위해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문했던 영국 런던, 스위스 베른·루체른, 프랑스 파리가 문화의 선진국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번영했던 지역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락하거나 폐쇄되어 버린 지역이나 장소를 철거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개발을 하여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문화를 입히고 있었다.

오르세 미술관은 1804년 세워진 재판소를 오르세 궁이라 한데서 이 미술관 명칭이 유래되었으나, 이후 이곳은 화재로 소실되었다.

1900년 파리시에는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오르세역을 재건축하였다. 그런데 1939년 이후 폐역이 되면서 방치되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오늘날 프랑스인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또한 파리시는 1950년대 도시발전에 따라 파리시를 재개발하여할 시점에 도달하자 파리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재개발하기 보다는 파리와 인접한

지역을 신도시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신도시에도 기존 파리시와 같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1959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개발구상을 마련한 하였다.

또 여기에는 도시내 건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파리 중심부의 역사적 보전건물과 대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었고, 신도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철도, 버스, 주차장 등)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적인 계획인 아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간중심의 도시이자 도시 효율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관광자원으로 계획·발전된 신도시가 바로 '라데팡스'이다.

둘째는 친절의 생활화·문화화이다. 선진국을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중의 하나로 대부분 국민들의 친절함과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호텔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외국인 하나같이 '굿모닝'이라는 인사말을 하고, 길에서 잠깐 스치듯 부딪치는 외국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웃으면서 '쏘리'라고 미안하다는 인사말을 하고 지나치는데 반하여 아직까지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스쳐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한다하여 친절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많은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대에 친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이지만 친절은 결국 '남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또 친절은 개인과 기업,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고객에 대한 친절은 기업의 성공을 위한 금과옥조나 다름없으며, 친절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무형의 자산이라 할 것이다.

외지인과 외국인을 열린 마음으로 맞고 배려하는 자세인 친절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양식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스위스에서 버스편으로 프랑스로 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현장학습 체험을 위해 여행 중인 초등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여쭙어서 '코리아'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 밈상지라고 하였더니 무척 반가워하였다.

강남스타일로 같이 춤을 춰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더니 학생들이 호응하여 스마트폰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맞추어 학생들과 즐겁게 춤을 추었고, 기념으로 사진도 함께 찍었다.

이렇게 문화는 소리없이 세계인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았다. '70~'80년대에는 팝송을 세계 주류 음악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내가 이제는 K-POP을 통해 우리 문화가 수출되는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유럽 선진도시와 같이 우리 장성을 인간 중심의 문화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인간 중심적인 기반시설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7. 유럽이 선진사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의회사무과 행정6급 문 ○ ○

2013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6박 8일 동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스위스, 프랑스를 다녀왔다.

여행이라는 설렘을 뒤로하고 선진국의 문화·관광인프라 등의 시설을 견학한바 배워야 할 게 많은 일정이었다.

영국의 경우 의회민주주의 중심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이 시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에서 유일하게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가꾸는 노력을 통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프랑스는 파리시라는 문화예술 도시를 보전하기 위해 '라데팡스'라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파리시의 도시계획과 연계는 물론 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변함없이 최초에 신도시를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진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해 본다.

□ 더불어 살아가는 일자리 나누기

프랑스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난 궤초는 길거리에 버리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공중도덕이 문란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쓰레기를 버려야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처음 관광차량을 탑승하는 데 모르는 외국인이 운전기사 옆자리에 타서 무슨 이유인가 물어보았더니 운전기사가 8시간 이상 운전

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차량의 경우 8시간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보조운전기사 같이 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교통 범칙금을 부담이 될 정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 인간 중심의 도로 운영

선진국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람중심의 도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행자 도로는 큰 도시일수록 폭이 넓어 사람들이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을 해도 보행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작은 도시도 보행자가 여유를 갖고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또한 차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페인트로 표시·설치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없어 인상적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동차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등 차량소유자에게는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보행자는 빨간 신호등에도 도로를 횡단하여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간 신호등에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일까?

어쨌든 위의 사례와 같이 교통정책도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에서 보았던 자전거 주·정차 공간 확보와 유·무료이용 자전거 시스템은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견학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도 옆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의 주차장이 되어버려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밖에 없어 위험한 자전거 타기 현실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함께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비교해 볼 때 인간중심의 도로는 아직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

유럽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라데팡스' 건설처럼 40여 년이 소요되는 사업에서부터 '파리 하수도 건설사업'처럼 1백년 이상이 소요되는 계획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의 건축물은 최근 건물에서부터 천 년 이상된 건물과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오염시설 물도 잘 만들어 놓으면 견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관광자원화가 가능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 계획과 추진의 계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참여하는 사람들도 믿고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든 정책에 대해서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그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8. 유럽을 통해본 우리의 현재와 미래

📍 의회사무과 기능7급 황 ○ ○

어떤 연수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연수의 목적은 이번의 연수에 참가함에 있어 많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지방의회 방문, 스위스의 양로원 견학, 프랑스의 하수도 체험 등 필히 우리가 연구할 과제들이어서 전문을 넓히고 하나라도 배워 본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6박 8일의 일정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장도에 올랐다.

인천공항에서 5일 13시 10분 출발이라 새벽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장장 12시간의 비행 끝에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하니 5일 16시 20분, 8시간의 시차 때문에 석식을 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는데 한눈에 유럽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도로는 좁고 차는 소형차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인지 버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였다. 주변의 주택가는 우리나라 연립주택의 형태인 주택들이 많아 단조로운 느낌이면서도 오래된 건물들을 잘 보전하여서인지 운치가 있어 보였고 고풍적인 냄새가 물씬 났다.

런던식 빵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영국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의사당은 화이트 홀이 끝나는 템즈강가에 7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고딕스타일의 의사당 건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0m가 넘으며, 1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었으며, 유명한 빅벤은 높이 95m로 아직도 손으로 태엽을 감는다고 했다. 시간지기 꼭대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회의 중이라고 했다. 상원의원은 1,200명인데 종신제로 상징적이고 실제 일은 하원이 한다. 상원의원은 하원 중에서 원로이거나 많은 업적을 남긴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상원의원이 된다고 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인으로서는 상원의원으로 남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다.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비리에 연루되거나 하면 상원의원으로 지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비교적 깨끗한 정치를 하려 노력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도 명예롭지 못하게 정치를 마감하는 것을 볼 때 새겨볼만한 일이다.

시가지를 거쳐 시청의 청사를 견학했다. 그리 웅장하지 않은 평범한 건물인데 시청이란다.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나라 관공서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조형물을 시가지의 바닥에 넣어 만들어 밟으면서 감상할 수 있었다. 넬슨제독의 기념탑이 있는 트라팔카 광장으로 이동하는데 대부분 고대 건축물로 사람 다니는 인도는 돌로 깔아져 있는데 아주 오래 됐다고 한다. 특히 영국은 자원보호, 환경문제 때문에 한번 지은 건축물이나 도로, 인도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수백년이 됐는데도 그대로인 이곳의 시설들을 보고나니, 파고 메우고 또 파고 메우는 우리나라와 어쩔 그리도 다른지 새겨볼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날 좋던 날씨와는 다른 비가 오는 날씨에 영국에는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실감했다. 비가 많고 안개가 많고 흐린 날이 많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인지 런던 포크가 있듯이 옷감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전용버스로 시가지 미팅장소인 스웨덴의회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톱비는 데도 우산 쓴 사람이 별로 없어 이곳은 날씨에 별 관심없다고 느꼈다. 도착하니 한국통역관과 기획담당, 정책담당 두분이 반갑게 맞아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영국에 32개 주가 있고 여기는 조그마한 자치구로 인구 24만, 공무원 4천8백명, 의원 60명 조그마한 시인데도 의원내각제로 4년마다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중에서 의장이 되고 의장이 시장을 겸하고 국장급 10여명을 임명, 시정을 꾸린다고 한다. 예산은 중앙지원 50%, 자체 50%로 낙후지역, 개발지역 여건에 맞는 분배정책, 주택개발, 노인복지 및 각종 복지, 주차문제 등 우리와 비슷하고 현안사업문제는 해당지역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해 해결하고 보다 범위가 커 자치구로 어려우면 인근 2~3개 구가 협의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한다니 서로 경쟁하는 우리와 대조적이었다.

의원의 보수는 약간의 실비만 지급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를 들면 직장인 초봉이 6,500프랑에서 7,000프랑 우리 돈으로 약 1억, 의원은 1,800프랑 정도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회의 때만 나온다고 했다. 의원은 국회 의원이 되는 발판으로 이용되며 다선의원이 많은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또한 정당정치라 의원들은 당의 지침을 많이 따르고 작은 의회이지만 보다 독립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이 특이했다.

우리가 방문한 것이 보고됐을 텐데도 나와 보는 의원은 없고 사무실은 호화롭지 않고 의원실은 의자와 책상으로 체면이나 격식이 없어 보인 듯했다. 15층 정도의 의회 빌딩인데 의회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일반인에게 임대한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인근에 버킹엄 궁전이 있어 도보로 이동해 기념촬영하고 다음 목적지인 스위스로 가기 위해 개트워공항으로 움직였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여 인터라켄 숙소에 도착하니 22시 30분, 여정의 피곤함에 쉽게 잠이 들었다.

기상하니 날씨는 쾌청, 이른 봄이라지만 들판에 잔설과 고산봉. 우리는 만년설이 아름다운 스위스 경관을 감상하며 알프스 산 중턱까지 버스로 이동했다. 4번의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정상에 오르니 해발 2,997미터로 눈앞에 펼쳐진 근사한 알프스 파노라마 360도를 회전하는 피츠글로리아 레스토랑에서 200개가 넘는 산봉우리들을 만끽했다. 만년설이 있고, 빙하고 있고, 아래는 숲이 있는, 말 그대로 한폭의 그림이었다. 마당만하게 눈이 쌓인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은 1년에 얼마 안된다고 미소지으며 말하는 가이드의 설명에 기분이 좋았다. 스위스 사람들은 보수적이며 내성적인 경향에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매너를 중요시한다는 설명을 듣고 하산했다.

노인양로원 방문차 유럽풍의 깨끗한 마을에 도착해 양로원 안으로 들어가니 50대쯤 보이는 여성 원장님이 환영해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80세 정도의 할아버지가 쇼파에 등을 대고 오침을 즐기는 중이셨다. 수용인원 15명 정도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의사, 간호사 포함 16명쯤 된다고 했다. 각자 화장실, 목욕실이 갖춰진 독방인데 비교적 잘 꾸며져 있고 손자들의 사진도 걸어놓으며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이런 복지시설이 마을마다 있다고 한다. 양로원이 없는 우리와 다른 점은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300명 정도 수용의 요양원도 많지만 마을단위 규모 양로원이 이색적이고 각종 놀이, 피아노, 요리, 노래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한다니 역시 선진국다웠다.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인근 축산 농장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좋던 날씨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젖소 37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인데 소꼬리를 묶어 매달은 것이 신기했으며 우유는 1일 35리터, 연 17만 리터를 생산한다고 한다.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없고 협회에서 연 5만 프랑 정도를 지원하며 두수는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경작면적에 따라 키울 수 있는 마리수가 허가된다고 한다. 초지면적에 따라 실사육 두수를 허가 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사육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점이 크게 반성할 일이다.

다음 날 예술과 건축의 도시 바젤로로 이동 시청사, 미술관, 구시가지 등을 거쳐 스위스 국경을 넘어 프랑스 벨보트 역에서 기차를 탑승하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대자연이 신비로웠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넓은 평야와 푸른초원으로 산이 많은 스위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었던 기차이동은 일행과의 연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4시간이 지나 어느새 파리에 도착했다. 프랑스를 빼놓고 유럽을 이야기할 수 없다더니 휴일이라서 그런지 시내가 활기차고 패션이 돋보이며 규격에 맞게 준비한 건축물이 예술임을 감상하며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기상 후 아침에 파리에서 산책하니 바람이 불고 무척 쌀쌀했다. 여기도 꽃샘추위인가 보다. 절대 왕권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베르사이유 궁전 문화 탐방에서 왕비의 거실, 거울의 방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곳은 왕실을 지방으로 옮긴 격인데 넓은 숲과 사냥터, 호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이나 궁의 화려함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학차 외곽 신도시를 방문, 나름대로 특징이 있게 예술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서 있었다. 건물과 건물의 이동 통로 설치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설계된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였다. 세계 최대 쇼핑센터와 유명백화점, 은행, 증권 등 재벌 회사 사무실이 밀집에 있는데 모든 것이 차나, 사람이 별로 안보여 역시 선진국의 신도시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곳을 다녀간다니 감탄이 절로 났다.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박물관에 비너스, 모나리자가 함께 있는 곳, 1만 8천여 작품이 모두 진품이라고 했다. 파리에서 마지막 밤을 떠나 보냈다.

진눈깨비가 오는 아침, 기대를 안고 방문한 파리 하수구 박물관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였다. 1850년에 하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파리에 물을 공급했다. 하수구 지하로 들어가니 하수구 그대로 상수도는 지하 윗편에 하수도는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으로 나뉘어져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모여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했다. 특이한 것은 지하 하수도도 지상건축물과 똑같이 번지가 있단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열쇠가 하수구에 흘러들어갔다 하수구 관리처에 몇 번지에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하면 찾아줄 정도란다. 또 귀금속을 잃어버렸다 하면 중간에 물을 막아 흘러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찾아준다고 했는데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했다.

1980년대인데도 그토록 철저하게 파리 사람들은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한다는 가이드 설명이였다. 만약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 주물로 하수구

규격에 맞게 등글게 제작해 막힌 위쪽에서 굴린 다음 다시 옮긴다고 했다. 큰 하수구는 배 타고 작업하고 작은 하수구는 기계가 모니터로 몇 번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직원에게 평야지인데 어떻게 물이 흐르냐고 질문하니 약간의 격차가 있고 종말처리장은 몇십미터 아래에 설치돼 정확한 다음 다시 품어 강으로 내보낸다니 찬사가 절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주 파는 일 없이 상, 하수도 공사를 함께 가는 추세인데 늦게라도 다행인 것 같다.

생각보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배우며 서로 연구와 대화를 통하여 나름의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파리를 떠나 돌아왔다.